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0. 12.(월) 11:00
(지면) 2026. 10. 13.(화) 조간

배포 2026. 10. 12.(월) 06:00

붉은발말뚝게, 창원 봉암갯벌에 생명을 더하다

- 해수부,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 성과를 습지보호지역 생태계 복원으로 연결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월 13일(화) 인공증식한 해양보호생물 붉은발말뚝게 500개체를 경상남도 창원시 봉암갯벌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붉은발말뚝게는 붉은빛을 띠는 집게다리가 특징이며, 갑각의 길이는 약 3cm, 폭은 약 3.5cm이다. 주로 서·남해와 제주도의 하구·연안습지 주변의 돌담과 풀밭 등에서 서식한다. 과거에는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연안 개발 등 서식지 파괴로 인해 개체 수가 급감하여 현재 해양보호생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이번에 방류하는 붉은발말뚝게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사업을 통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김현태)과 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 공동 연구팀이 실내 인공증식에 성공하여 성체로 성장한 개체들이다. 방류 대상지인 봉암갯벌은 2011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갈대와 같은 염생식물 군락이 형성되어 있고, 담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붉은발말뚝게가 서식하기 적합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류를 통해 자연개체군의 확대와 해당 지역의 생물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김현성 해양생태과장은 "해양보호생물의 복원을 위해서는 개체를 증식하는 노력과 생물들이 살아갈 서식지를 지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증식 성과가 해양생물 다양성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김현성 (051-773-5310)
		담당자	사무관	최진솔 (051-773-5315)

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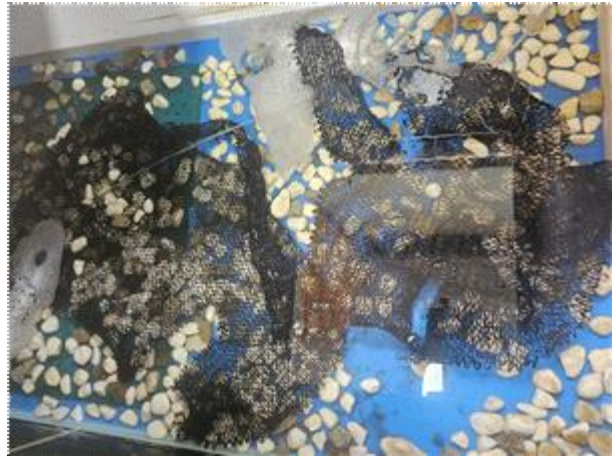
붉은발말뚝게 사진



붉은발말뚝게



붉은발말뚝게 성체



인공증식으로 성장한 어린 게